

네팔 아동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께



회원님,
지난 2015년 4월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을 기억하시나요?

어느덧 9개월이 지나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지금, 네팔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부족해 주유소에는 오토바이부터 큰 트럭까지 하루 종일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며, 대중교통인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어져 사람들이 버스 자봉에 올라타는 위험한 줄·퇴근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전기가 14시간 이상 들어오지 않고, 가스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진 경우에는 물이 새고 추위를 막지 못하는 양철지붕으로 만든 집에서 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직후 밀알복지재단에서는 3차에 걸쳐 긴급구호 팀이 파견되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닿기 힘든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탕곳 지역 또한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김정근 프로젝트 매니저와 학교 선생님들은 결연아동들이 소속되어 있는 4개의 사업장(춘데비스, 명걸다야, 브라이트 엔젤, 프라밋)에서 아동의 생사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여진이 계속되어 통신과 이동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아동들이 많아 조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아동들을 학교에 모아 피해현황을 조사하였고, 가정 당 25kg의 쌀과 구호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지진 이후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아동들이 돌아오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프라밋 사업장의 세니 쿠말 아동(5세)이 무너지는 동상에 부딪혀 사망했으며, 행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지역 또는 국경을 넘어 인도로 이동하여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50여명의 아동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선택한 아동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고 붙잡고 싶었지만 현지 상황에서 학업유지를 권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아동들의 예전 모습을 되찾고 교육환경을 정상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아동들을 위해 주 6일 매일 아침 600개의 중식용 빵을 구워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도록 두툽한 겨울용 자켓과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겨울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동들에게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행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만간 아동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담요와 필수 의약품품을 추가로 지원하고, 2016년 학사일정에 따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획했던 각종 물품 및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네팔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아동들은 언제 지진피해가 있었느냐는 듯 밝은 모습으로 등교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아동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회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네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 밀알복지재단 드림



아동 피해현황 조사 모습



2015년 12월 동북지원